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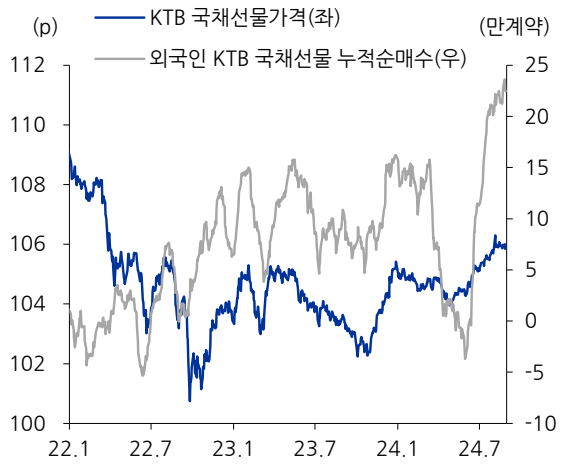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76_ 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 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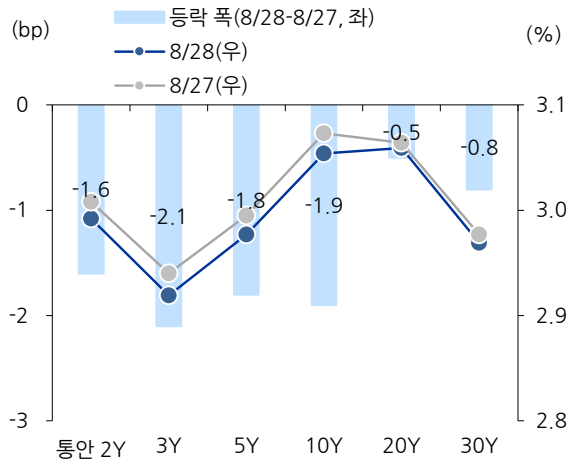
		8/28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19%	-2.1	-2.1	-23.5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054%	-1.9	5.7	-12.9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3.5	13.3	5.7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9	4.0	2.0	47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55	14.0	-58.0	105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867%	-3.4	-6.7	-38.3
	미국채 10년물	3.836%	1.3	3.5	-4.3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-3.1	-7.8	-13.3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258%	-3.2	6.9	25.4
	호주국채 10년물	3.932%	2.3	4.1	-2.3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국발계 부담 속 수급 연동
- 내년 국채발행 규모 급증한 여파 이어지며 오전 중 약세. 이창용 총재, 집값 우려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졌다고 발언하며 금리 부담을 가중
- 다만 오후 들어 외국인 국채선물 매수세 유입 확대됨에 따라 강세로 전환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.
- 2분기 GDP, 7월 PCE 등 지표 대기하며 박스권 흐름 전개. 장 중 미국채 5년물 입찰 수요 견조했던 점을 제외하면, 특별히 가격 움직일만한 재료는 부재했음
- 금일 미국 2분기 GDP 수정치, 미국 7월 잠정주택매매 등 발표 예정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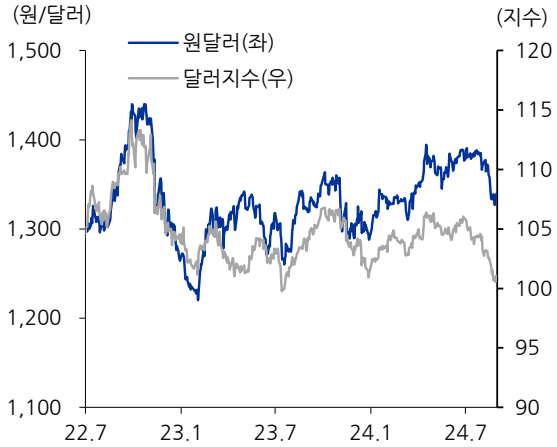
FX & Commodity

(단위: %, $)

		8/28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339.00	0.6%	0.2%	4.0%
	달러지수	101.07	0.5%	-0.1%	-0.2%
	달러/유로	1.112	-0.6%	-0.3%	0.7%
	위안/달러(역외)	7.13	0.1%	-0.1%	0.1%
	엔/달러	144.66	0.5%	-0.4%	2.7%
	달러/파운드	1.319	-0.5%	0.8%	3.7%
	헤알/달러	5.57	1.0%	1.5%	14.7%
상품	WTI 근월물($)	74.52	-1.3%	3.6%	4.0%
	금 현물($)	2,504.53	-0.8%	-0.3%	21.4%
	구리 3개월물($)	9,238.50	-2.2%	0.4%	7.9%
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8.00원 상승한 1,339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37.00원 마감.
- 간밤 달러가 그간 약세를 되돌리면서 달러-원도 상승 출발. 아시아 장중 달러가 추가 강세를 보였고 국내외 재료도 부재한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달러-원은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엔비디아 실적 주시 및 월말 매수세 유입으로 상승.
- 전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없었음.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 실적은 예상을 상회했지만 마진이 둔화되면서 테크 업종 주가는 하락, 위험 선호 회피 심리 후퇴
- 금일 미국 GDP 수정치 및 실업급여 건수 발표 예정